

120+ 희망이 필요한 순간,
대한적십자사
1905-2025 KOREAN RED CROSS

Red Cross

2025 vol. **584** WINTER

1960



1980



1991



2014



사진으로
보는
대한적십자사
120주년-④



2022. 3.

역대 최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동해안 산불 종합구호활동

2015. 10.

제1회 레드크로스 갈라(연말 자선 모금 행사)



2021. 12.

헌혈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2017. 7.

청주 집중호우 피해 구호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자



2021. 10.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대상
특별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2018. 11.

62km(표선~삼양) 일정으로 진행된
청소년적십자 자전거대행진



2020. 2.~2024. 5.

코로나19 구호활동,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2022. 7.

누구나 진료센터 개소



2023. 2.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긴급지원 활동



2023. 6.

RCY 창립 70주년 기념비 제막



2025.10.

대한적십자 창립 120주년 기념식



2025. 7.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 및 복구활동



2025. 3.

의성군 산불 긴급구호 현장에 투입된
구호급식 차량



2024. 2.

대한적십자사 디지털 아카이브 개관
(서울사무소)



CONTENTS

- 05** 발행인 메시지
대한적십자사의 역사는 인도적 위기를 극복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
- 06** 역사 속 대한적십자사 - 국내복지·국제사업 편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생명을 지켜온 인도주의 역사
- 08** RC 국내 리포트
희망의 바람아 불어라
- 12** RC 해외 리포트
미얀마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전한 희망의 인사
- 14** RC 스페셜 스토리
7,000개의 빛, 10년 만의 재회
- 16** RC 스페셜 리포트
인도주의의 과거와 미래를 잇다
- 18** RC 연말 리포트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나눔
- 21** RC 위기가정 돕기 캠페인
다영이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 22**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적십자사는 말없이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
- 24** 후원금 사용 보고
후원금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 26** 최갑수의 여행
시간의 켜가 겹겹이 쌓인 골목을 걷다
- 28** 일상 속 RC
겨울철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기
- 30** RC News
지역별 대한적십자사 소식
- 40** 나눔이 희망입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 42** RC를 만나는 방법
대한적십자사가 여기 있습니다!
- 43** RC 후원자 코너
RedCross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커버스토리

앞표지

1960년 청소년 야학 지도

1980년 RCY 총주중원지구협의회 농촌봉사활동

1991년 이란 지진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품 지원

2014년 행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풍차 SR 나눔로드'

뒤표지

2021년 코로나19 당시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2022년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사랑의 선물 제작

2024년 우크라이나 구급차 차량 지원

2025년 따스한채움터 떡국나눔 봉사활동

RedCross media
생명을 지키는 희망 소식



채널 바로가기



웹진 바로가기

대한적십자사 소식지 RedCross

발행인 김홍국 편집인 박종술 발행처 대한적십자사 홍보팀(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전화 02-3705-3705 기획·디자인 엔자임헬스 주식회사



대한적십자사의 역사는 인도적 위기를 극복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 대한적십자사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전쟁과 재난,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한결같이 고통받는 이들의 곁을 지켜온 인도주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는 원칙 아래 국내 위기가정부터 해외 재난 현장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국내 복지사업에서는 위기가정 발굴부터 맞춤형 상담·지원·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복지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긴급생계비와 주거안정 지원, 아동·청소년 돌봄, 장애 가정 지원은 물론, 치매 예방, 자살 예방,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워왔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국제사업에서는 재난 발생 직후 긴급구호물자 지원을 넘어, 수혜국의 역량을 키우는 개발협력 사업으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인도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미얀마, 필리핀 등 전쟁과 재난 지역에 구호요원을 파견하고, 우리의 나눔이 현지 이재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노력하여, 대한민국 인도주의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은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서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인도적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였다면, 앞으로는 위기를 예방하고 경감하는 '선제적 인도주의'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며, 인도주의 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국의 봉사원과 청소년적십자 단원, 헌혈자, 후원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인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습니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행이야말로 적십자가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힘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그리고, 세계와 함께 걸어갈 적십자의 여정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120년을 향한 힘찬 첫 걸음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 김홍국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생명을 지켜온 인도주의 역사

국내복지·국제사업 편

전쟁고아를 돌보던 탁아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대한적십자사는 국내외 위기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120여 년간 이어온 국내 복지사업과 국제 인도주의 활동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1962



농번기 어린이를 품은 적십자 탁아소

1956년 전쟁고아와 미망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아동복지사업은 1960년대 농번기 탁아소 사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968년 한 해에만 전국 132개 마을에서 14,945명의 아동을 보살피며 취약계층 아동 지원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아프리카 가뭄, 국민의 나눔으로 응답하다

대한적십자사는 아프리카 가뭄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가두 모금을 전개했습니다. 봉사원과 청소년적십자단원이 시민 참여를 호소해 6억 7천만 원을 모았고, 난민촌에 곡물과 의약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 인도주의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1985



2011



이웃 나라의 아픔에 함께하다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으로 15,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445억 원을 모아 일본적십자사에 전달하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역사적 아픔을 넘어 이웃을 도운 인도주의 사례였습니다.

4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풍차

대한적십자사는 아동, 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4대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풍차' 프로그램을 전국 14개 지사에서 시작했습니다. 희망컨설턴트가 기초생활·의료·주거·교육 등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며, 34만 명의 봉사자와 유관기관을 연계한 나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12



2016



라오스에 깨끗한 물과 건강을 선물하다

대한적십자사는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 17개 마을에서 식수와 위생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취수 시스템과 화장실을 건설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해 질병 예방과 위생 습관 형성을 도왔습니다. 긴급구호를 넘어 현지 자립을 돕는 개발협력 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 누구나 진료센터

대한적십자사는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2년 인천적십자병원에 누구나 진료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누구나진료센터'는 진료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진료 봉사나 후원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료·봉사 플랫폼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공공의료 프로그램으로 인천·서울·상주·통영·영주적십자병원에 설치되어 1만 6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2



2023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을 위한 우정의 마을

2023년 10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카흐라만mara 쉬주 파잘직 지역에 국민 성금으로 '한국-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약 11만m² 부지에 1,000여 채의 컨테이너 주택이 세워졌고, 학교·놀이터·보건소·심리 지원 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건설되었습니다.

사랑의 빵 나눔 봉사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은 시민들이 직접 빵을 만들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입니다. 전국 44개의 빵 나눔터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41만여 명에게 빵을 전달했습니다.

2024



2025



자원봉사자와 결연을 맺은 지원 세대 할머니

대한적십자사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와 봉사원이 결연을 맺어 정서적 지지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희망풍차 결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기준 19,681가구에 생활 물품을 전달하고 정기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바람아 불어라”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로 피워낸 따뜻한 연대

복지사각지대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가정들에게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는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한 위기 상황부터 일상의 작은 필요까지, 촘촘한 안전망으로 이웃의 곁을 지키는 희망풍차 사업은 연말을 맞아 더욱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풍차



위기의 순간, 희망의 풍차가 돕니다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는 2012년부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보호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복지제도의 틈새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가정들에게 희망풍차는 절실한 생명줄입니다. 희망풍차라는 이름에는 복지사각지대에도 희망의 바람이 불길 바라는 대한적십자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풍차 지원사업은 생활 안정을 돕는 긴급지원, 적십자봉사원과 함께하는 결연지원, 후원기업과 연계한 맞춤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확대되는 희망풍차는 2021년 32만 명, 2022년 39만 명, 2023년 55만 명, 2024년 60만 명을 지원하며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과 함께하는 희망풍차, 16년의 동행

고려아연은 2009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희망풍차 결연세대 물품 지원 사업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누적 기부금 130억 원을 돌파한 고려아연은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계절별 맞춤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삼계탕과 제철 과일, 서클레이터·넥쿨러 등 냉방용품, 겨울에는 김장김치와 함께 이불세트·찜질팩·넥워머 등 방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고려아연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서 '건강한 겨울나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려아연 임직원과 적십자봉사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6,300kg을 담갔습니다. 가구당 9kg씩 포장된 김장김치는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등 5개 자치구 취약계층 700세대에, 방한용품은 300세대에 전

긴급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상시 발굴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분야의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적십자 봉사원의 현장조사와 행정기관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2024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실직·폐업,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삶이 막막해진 2,987가구에 51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위기 가정의 붕괴를 막고 재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결연지원



전국 15개 지사의 적십자 봉사원이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과 결연을 맺고 직접 방문해 기초생활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전국 2만여 가구와 결연을 맺고 희망풍차 나눔마켓을 통해 매월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종료 후에도 지역 기반 봉사회가 해당 가정을 지켜보며 필요시 적십자의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맞춤지원



후원기업의 특성과 사회적 이슈에 따라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입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이재민, 저소득 산모, 여성청소년 등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2024년 51만 명을 지원했습니다. 기업과 협력하여 위생용품 및 출산용품 지원, 이혼등이 의료비 지원, 재능개발 지원, 도서관 설치, 주거환경 개선, 가족여행,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했습니다. 고려아연 정무경 지속가능경영부문 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담근 김장김치와 방한용품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립시, 꽃길로 :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맞춤형 지원 사업 중 ‘자립시, 꽃길로’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2024년 5월 론칭된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후 꽃길만 걷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매년 약 2,000명의 청년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지만,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 약 2명 중 1명(46.5%)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8.3%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울증(30.7%)과 경제적 문제(28.7%)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청년재단 등과 협력하여 자립준비청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2025년에도 ‘자립시, 꽃길로’ 프로그램을 이어갔습니다. 7월 3일부터 10일까지 약 200명의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선발된 청년들은 한달기록 챌린지와 정서키트, 숲체원 등 정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기개발장학금 20만 원과 진로지원장학금 100만 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으며, 재무·투자·주거 교육과 미션수행금 총 30만 원, 건강검진 지원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간, ‘자립시 꽃길로’ 참여 청년 25명은 멘토로 함께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봉사원 11명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운동 자와 섬에서 산호초와 맹그로브 나무 심기, 해변 플로깅, 노후 건물 벽화 그리기 등 봉사활동으로 현지 환경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운정국제교육재단이 후원한 ‘우정의 선물상자’ 전달과 태권도, 전통놀이 체험 등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학생 간 문화교류를 나눴습니다. 참가 청년들은 “처음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 나가게 되어 설렌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



보호 종료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Saving Ring' 캠페인

자립준비청년 응원캠페인 신청하기

세이빙링은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미래를 지키고(Saving) 응원하는 반지 모양의 굿즈로, 후원 참여 시 리워드로 제공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서 지원 및 생활 경험 확대, 건강검진, 주거복지 등을 위한 유스타트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강지나 교사

고등학교에서 25년째 영어를 가르치며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교사생활 중 가난한 집 아이들이 눈에 밟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10여 년간 빈곤 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집필했다.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 애쓰고 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마을이다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지인에게 들은 얘기다. 초기에는 이들을 지원하는 정착금이나 수당이 턱없이 작았다고 한다. 이후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운 사정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의 캠페인이 시작됐다. 다행히 이 운동이 반향을 일으켜 지원액이 총 4천만 원 정도로 늘었다(서울시 기준). 지원금이 늘었으니 이제 그들의 삶은 많이 나아졌을까? 아니라는 것이 지인의 결론이었다. 우리는 금전적 지원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은 사회적 고립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사회에 나와 독립하고, 홀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학업을 이어갈 때 응원해 줄 지지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가에 가면 ‘혼밥’, ‘혼공’, ‘혼술’이 유행이다. 학부제의 영향으로 전공 학과라는 소속감이 사라졌고, 한때는 필수처럼 가입했던 동아리 활동은 퇴색된 지 오래다. 수업도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으니 매일 학교를 가야 할 필요도 사라졌다. ‘나홀로 문화’ 안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빈곤층 청년이다.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틈틈이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다.

빈곤층 청년은 주위에 자신을 받쳐줄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진로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얻거나 인맥으로 좋은 자리를 소개받기 어렵고, 스펙을 쌓는 동안 뒷받침을 해 줄 지원체계가 취약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 구제해 줄 안전망도 없다. 빈곤은 디딤돌 지원금을 주고 저리(低利)로 대출해주는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여러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응원과 도움을 주는 연결망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빈곤은 경제적 재화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연결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의 제도는 자산 조사를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빈곤을 극복하라고 한다. 연결망을 만들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치해 둔다. 게다가 시가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넓혀가고,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까지 있으니 더욱 사람 간에 직접 소통보다는 개개인이 인터넷의 바다를 헤맨다. 인터넷

에서 개인 간 연결을 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훨씬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아직 미지수다. 개인은 더 철저히 고립되고 빈곤층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올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농촌 마을로 주거를 옮겼다. 이곳엔 도시였으면 괴담이었을 일이 매일 발생한다. 낯선 나에게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고, 아이들은 어른이라고 인사를 한다. 봄에 산수유, 블루베리 등이 열리는 시기, 마을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그릇 가득 봄 열매를 선물 받는다. 얼마 전 김장을 했는데, 집집마다 서로 나눠주느라 온통 정신이 없었다. 거의 입지 않아 새것과 다름없는 옷은 ‘나눔 가게’에 가져가고, 헌 옷을 싼값에 구입해서 패션 감각을 뽐낸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이다. 이곳에선 가난해도 고립과 소외를 느끼며 살지 않아도 된다. 마을의 부자들은 이웃의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행사가 있으면 후원금을 내놓거나 선물을 제공한다. 일자리가 생기면 마을 청년들에게 서로 연락해서 추천해 준다. 물론 시골이라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풍족하지 않은 점이 제일 문제다. 하지만 청년들이 자리 잡고 살아야 마을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음알음 도움을 준다. 이런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긴급구호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이곳은 천국도 아니고 마을 주민이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고립과 분리로 개인이 방치되는 일은 없다. 바람이 있다면, 마을 안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학교와 놀이공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노인들이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지원도 가능하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연결망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다. **빈곤문제는 지원금으로, 복지지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적은 관리비용과 낙인감이나 박탈감 없이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빈곤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아이를 키울 때만 온 마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

“땡글라바(축복이 함께하기를),
한국에서 왔습니다.”

미얀마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전한 희망의 인사

3월의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미얀마 주민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조사단이
6월 현지를 직접 찾았습니다.
지진 발생 3개월 후 시작된 재건복구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과 국제 적십자사는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지진 복구를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발걸음

지난 6월 3일부터 9일까지 대한적십자사 현장조사단이 미얀마 양곤, 만달레이, 사가잉 지역을 차례로 방문했을 때 지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3월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무너진 집터와 갈라진 땅이 자리하고 있었고, 최소 3,800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은 참혹한 현상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진 직후 긴급구호기금 10만 스위스 프랑(약 1억 7천만 원)을 지원해 미얀마 적십자사의 구호활동을 도왔습니다. 재건복구를 위해 미얀마를 찾은 대한적십자사의 현장 조사단은 막대한 피해 속에서도 희망의 새싹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미얀마적십자사 직원들과 봉사원들이 이재민들과 함께 임시 거처를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는 모습에서 회복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단이 전달한 생필품과 구호 물품을 받아든 이재민들은 “집과 생계를 잃어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은 무너졌지만 마음만은 굳건하다”며 웃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조사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단순한 구호





물품 전달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손을 잡다

양곤의 미얀마적십자사 본부에서 열린 국제회의에는 독일, 노르웨이, 일본적십자사 관계자들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들이 모여 재건복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부상자 구조와 의료 지원, 긴급 쉼터 지원, 식수 및 생필품 지원, 생계지원 사업을 펼쳐온 미얀마적십자사는 “이제 긴급구호 단계를 넘어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건복구에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지원 계획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사단이 제안한 ‘현장 맞춤형 쉼터 지원 사업’과 ‘물과 위생 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우기를 앞두고 안전한 거처와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해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PH.D. Myo Nyunt 미얀마적십자사 총재는 “지진 직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보내준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후위기 속에서도 재건 과정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을 향한 든든한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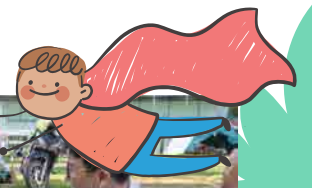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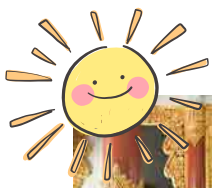
6월 7일부터 8일까지 지진 피해가 컸던 사가잉 지역의 한 임시 거주지에서 만난 젊은 아버지는 “우기가 시작되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조사단은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현지 조사 결과, 단순한 임시 거처가 아닌 튼튼한 주거 공간과 깨끗한 식수 및 위생시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미얀마적십자사 및 각국 적십자사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쉼터 건설과 물·위생 사업을 중심으로 한 현장 맞춤형 중장기 재건복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단이 현지를 떠나는 날, 한 이재민이 “다시 와주실 거죠?”라고 물었을 때, 조사단장은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미얀마의 재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얀마 현지에 재건복구팀을 파견하고 미얀마 지진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건복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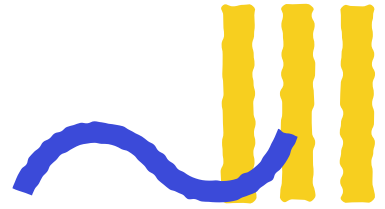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
대한적십자사 유튜브 바로가기



7,000개의 빛, 10년 만의 재회

전국 적십자봉사원 대축제 성료

지난 9월, 잠실실내체육관이 7,000개의 작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시간을 딛고 다시 모인 적십자봉사원들.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온 이들이
한자리에서 빛을 밝혔습니다.



10년 만의 귀환, 7,000개의 마음이 하나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2025 전국 적십자봉사원 대축제’가 9월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 개최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0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7,000명의 봉사원이 모였습니다. 재난 현장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돌봄에서 묵묵히 걸어온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헌신을 격려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포토존과 참여 부스가 마련돼 봉사원들이 활동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000개의 핑거라이트가 만든 희망의 물결

봉사원 헌정 세례모니는 이날의 백미였습니다. 7,000명이 일제히 핑거라이트를 들어 올리자 장내는 빛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적십자에 헌정한 시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와 헌정곡 ‘세상은 기억하리라’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 되리라”에서 영감을 받은 퍼포먼스였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비춘다는 메시지가 시각적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99명의 헌신, 숫자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지난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봉사원의 헌신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헌혈 장려,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온 유공 봉사원 9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적십자 봉사원대장,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봉사회 전국협의회 회장 표창 수상자들은 전국 적십자를 이끌어온 주역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36년간 19,209시간을 봉사한 최영숙(77) 씨, 25년간 20,058시간을 기록한 김숙자(72) 씨, 27년간 18,529시간을 헌신한 배정자(83) 씨 등 수십 년을 한결같이 이웃을 위해 걸어온 분들이 포함됐습니다.

99명의 수상자는 대한적십자사 120년 역사를 함께 쓴 수많은 봉사원을 대표할 뿐입니다. 그들의 땀과 헌신 뒤에는 이름 없이 묵묵히 이웃을 돌본 무수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길들이 모여 오늘의 대한적십자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은 이어질 것입니다.



노래로 전한 감사, 다시 시작하는 120년

홍보대사 장민호와 가수 진성, 안성훈이 축하 공연 무대에 올라 봉사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축제는 전국 3,600여 개 봉사회와 13만여 명의 봉사원이 함께 일군 12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2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적십자 봉사원들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연대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십자 봉사원 대축제는 그 헌신에 대한 감사이자, 앞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줄 그들을 응원하는 약속이었습니다. ●



인도주의의 과거와 미래를 잇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

코엑스 오디토리움에 1,200명의 적십자 가족이 모였습니다. 1905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시작된 인도주의 12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정부 포상과 나이팅게일 기장 수여, 역사의 상징적 인물들이 함께한 기본원칙 낭독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이었습니다.

1,200명이 모인 인도주의의 현장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이 10월 27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외교사절, 유관기관 관계자, 수상자와 가족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희망이 필요한 순간, 대한적십자사'라는 주제로 120년의 유산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헌신을 기리다, 30명의 정부 포상과 나이팅게일 기장

인도주의 실천에 헌신한 이들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40년간 60억 원을 기부한 유종근 전 대한적십자 총재(동백장), 700회 이상 헌혈한 이상운 씨(목련장), 47년간 봉사한 백순임 봉사원(석류장)이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총 30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으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에게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이 수여됐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순간들

대한적십자사 초대 회장 이회경 선생의 후손 김경호 씨,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헌혈자 김성덕 씨, 삼풍백화점 참사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친 이도희 봉사원, 해외 긴급구호 활동가 나종권 씨, 이산가족 임화숙 어르신, 심정지 시민을 살려낸 권영선 간호사, 적십자 고액 기부자이자 홍보대사인 안재욱 씨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식전에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경기지사 홍보대사)과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참여한 창작뮤지컬 「김마리아」가 공연되었습니다. 김마리아 여사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조직 내 ‘적십자부’를 두고 구호활동을 펼친 독립유공자였습니다.



선제적 인도주의, 또 다른 100년을 향해

기념사에서는 ‘선제적 인도주의’시대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전국 23만 명의 봉사원, 300만 명의 헌혈자, 500만 명의 후원자와 함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첫째, 지난 120년간 재난 대응에 집중해온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 위기 예방과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치매·자살 예방, 다문화 지원 등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 인도주의 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적십자의 자율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번 창립 120주년은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나눔

연말 따뜻한 나눔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연말 ‘레드크로스 갈라’와 ‘적십자 바자’, ‘사랑의 선물’ 통해 우리 사회의 온정을 모아왔습니다. 국제 인도주의 지원부터 지역사회 취약계층 돕기까지,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대한적십자사의 연말 나눔 행사는 더욱 깊고 넓은 연대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레드크로스 갈라 :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모금 축제

11월 6일, ‘인류를 위한 연대’를 주제로 대한적십자사의 자선모금행사인 ‘2025 레드크로스 갈라’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시작되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갈라는 대한적십자사의 대표적인 연말 행사로, 매년 다양한 주제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인류를 위한 연대로 전쟁 이재민, 난민, 재난피해자, 저개발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기금 마련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RCHC) 회원과 사회협력 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전국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정채영 대한적십자사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라며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 우리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아직 많습니다. 세상 속 리더로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어디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갈라는 100억 원이 넘는 모금액을 통해 재난안전 취약계층, 난민, 다문화 가정, 자립준비청년 등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올해 갈라는 특히 국제 인도주의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국경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는 연대의 장이 되었으며,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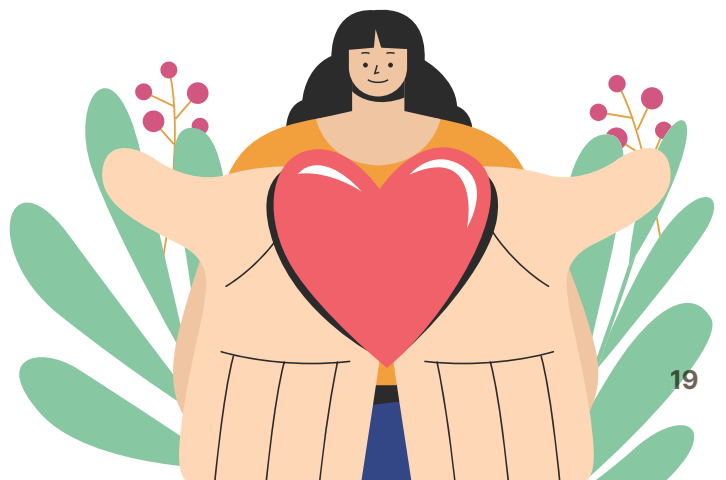
적십자 바자: 착한 소비로 만드는 특별한 나눔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B1홀에서 열린 '2025 적십자 바자'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주관하고 정부 부처 국무위원, 공공기관장, 금융기관장 배우자 등이 참여하는 수요봉사회가 후원했습니다.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부터 코오롱, 삼성물산 등 대기업까지 약 7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가전제품,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개장 전부터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에서 나눔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정채영 대한적십자사 부회장,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태린 국무총리 부인 등이 참석하여 각 부스를 둘러보며 바자회를 응원했습니다. 적십자 바자는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로, 수익금 전액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전해집니다. 바자회를 찾은 한 시민은 “좋은 물건도 저렴하게 구매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도 줄 수 있어 일석이조라서 매년 이 행사를 기다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열린 2025 적십자 바자는 우리 사회의 온정을 확인하고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선물 : 정성으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11월 19일,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와 수요봉사회가 함께 '2025 사랑의 선물' 제작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주한외교대사 배우자, 국무위원 및 차관 배우자, 금융기관장과 공공기관장 배우자, 골든반 회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등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선물 포장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올해 사랑의 선물은 적십자 봉사원이 결연을 통해 돌보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 3,000명에게 방한용품과 생필품 등 11종으로 구성된 선물을, 아동과 청소년 2,00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지원하여 총 5,000명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랑의 선물 제작 비용은 지난 11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적십자 바자'의 수익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시민과 봉사자, 기업이 참여한 바자의 수익금이 다시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김남연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은 "정성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 한파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와 지원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준비된 사랑의 선물은 대한적십자사 전국 지사를 통해 12월 초부터 결연 대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며, 선물 전달과 함께 취약계층 안부 확인, 겨울철 주거환경 점검, 정서적 지지 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진행된 사랑의 선물 봉사활동은 바자를 통해 모아진 나눔이 다시 이웃에게 전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대한적십자사의 따뜻한 발걸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다영이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다영이네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해주세요

베란다 추락사고 이후 12번의 수술을 견뎌낸 다영이. 동생 하영이는 사고 충격으로 실어증을, 엄마는 극심한 통증 질환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사람의 삶을 지탱해줄 손길이 절실합니다.

12번의 수술을 버텨낸 아이

6살 무렵 추락사고를 당한 다영이는 지난 5년간 12번의 큰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폐 한쪽이 기능을 하지 못해 산소호흡기에 의지했고, 다리와 골반에는 굳은 철심이 박혔습니다. 키가 자랄 때마다 휘는 다리는 지속적인 수술과 재활이 필요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동생 하영이는 실어증과 공황 증세로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사건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

엄마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병원 생활로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엄마 건강입니다. 경추척수증과 섬유근통증후군이 악화되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치료비와 생활비만으로도 벅차 생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아픈 티를 낼 수가 없어요.” 엄마는 이렇게 말하며 버티고 있지만, 의료비·주거비·생계비가 쏟아지며 가족의 일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장 집을 잃을 위기에 놓인 가족

지금 이 가족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주거 안정입니다. LH 임대주택에 입주했으나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십자는 후원금으로 다영이의 수술비와 엄마의 치료비, 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세, 두 아이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영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미래, 하영이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내일,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갈 ‘집’을 지키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다영이와 하영이네 후원 방법

보내주신 후원금은 쌍둥이 가족의 의료비(다영이와 어머니의 수술비 등), 주거비(LH 행복주택 보증금 등), 생계비(다영이·하영이네 가족 생계비 등)로 우선 지원되며, 이후 모인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들에게 지원됩니다.

무통장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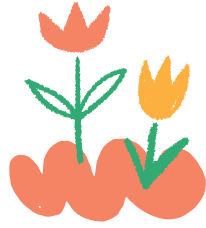
우리은행 : 1005-002-719129
(예금주 : 대한적십자사)
입금자명 : 성명 + 쌍둥이

다영·하영
쌍둥이 돕기
캠페인
참여하기





적십자는 말없이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



결핵 퇴치와 수출 역군으로 살아온 삶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만난 오연준 씨(88)는 “나는 일제강점기 교육도 받았고, 해방과 6·25를 모두 겪은 세대”라며 자신의 인생을 담담히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나눔 철학은 젊은 시절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똑똑한 사촌들이 20대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약학을 전공한 오연준 씨는 1960년대 유유산업에서 결핵약 제제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결핵약은 20알씩 먹어야 했고 위장 장애가 심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편하게 복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제제화에 기여했습니다.” 결핵으로 고생하던 환자들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는 지금도 그에게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너스클럽 289호 · 330호 회원
오연준(우) · 차영화(좌) 부부

오연준 전 효진물산 대표와 부인 차영화 씨는 2024년부터 지금까지 각각 1억 원을 기부하며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의 27번째 부부 회원이 되었습니다.

20년간 결핵 퇴치에 힘쓴 후, 오연준 씨는 1970년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회지에서 은행잎 추출물이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논문을 접하고, 독일 회사와 합작으로 논





산에 공장을 짓고 효진물산을 창업했습니다. “한국에는 은행나무가 많고 인건비도 저렴해서 가공 수출 사업을 시작했어요. 낙엽으로 버려지는 걸 수출해서 외화를 벌었다는 게 뿌듯했죠.” 그는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지로 20년간 수출하며 ‘수출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병실에서 깨달은 헌혈의 소중함

오연준 씨가 적십자 후원을 결심한 계기는 2024년 4월 위 수술을 받으면서였습니다. “빈혈로 수술을 못 한다고 해서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 밤에 깨보니 혈액 팩 2개가 주사되고 있더라고요. 그 피를 기증한 사람이 누군까 생각하니, 적십자사의 헌혈 캠페인이 떠올랐어요.” 수술 후 우연히 신문에서 본 아너스클럽 광고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적십자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세 가지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190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활동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다른 기관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오연준 씨는 적십자를 전통 가옥의 ‘주춧돌’에 비유했습니다. “시골 초가집 기둥 밑에는 항상 주춧돌이 있어요. 말없이 묵직하게 모든 걸 지탱하면서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죠. 적십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 텐트를 치고 급식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약학을 전공한 부인 차영화 씨(85)는 남편과 함께 적십자 후원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녀에게도 나눔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940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 6살에 어머니 손을 잡고 38선을 넘었고, 6·25 때는 목포를 거쳐 부산까지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에서 살면서도 아버지는 ‘굶어 죽어도 공부해라’고 하셨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주 과외를 하며 학비를 벌었던 그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렵게 도움을 받으며 공부했는데, 적십자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미력하지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인도주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오연준 씨는 손주들에게도 적십자 후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1억을 기부하는 건 너희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주는 거다. 언젠가 너희도 이런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 본 미국 영화의 마지막 자막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휴먼 패밀리(Human Family)라는 글자가 다섯 번 깜빡이며 나왔어요. 우리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IT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인도주의 정신이에요.” 오연준 씨는 젊은 세대들이 적십자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작게라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오직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만 합니다. 모든 국민이 주춧돌 같은 마음으로 적십자사를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오연준 씨와 차영화 씨는 적십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적십자가 주춧돌처럼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건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십자의 활동이 120년을 넘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또 하나의 기여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



후원금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2024년 복지·국제사업

복지사업

개방형 봉사활동 운영 및 봉사원 교육 개편을 통한 봉사 동력 확보

신규 프로그램 봉사원 모집

15,265 명



일반·전문·직장봉사회 결성

83 개



- 희망풍차 실무과정 교육 개편
- 모금교육 및 국제적십자운동과 인도주의 교육 신설
- 치매예방 등 전문교육 집중 추진

희망풍차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확대

희망풍차 맞춤지원 활동

구분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기타 위기가정
지원 인원	76,812 명	99,725 명	12,691 명	408,407 명
주요 프로그램	여성위생용품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꿈나무 재능 지원	주부식 지원 치매 예방	다문화 아카데미 주부식 지원 고려인마을 지원	따스한 채움터 (무료급식소) 운영 기부물품 지원

희망풍차 맞춤지원 활동

구분	지원(가구, 명)	금액(억 원)	비고
긴급 지원	1,924 가구 / 4,268명	42.7	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
결연 지원	19,681 가구 / 32,459명	58.6	결연가구 현물성 지급
맞춤 지원	597,635명	114.7	이른둥이, 자립준비청년
합계	21,605 가구 / 634,362 명	216.0	

국제사업

인도적 수요 중심 긴급구호·재건복구 및 개발협력 지속 전개

국외 재난, 분쟁 등 국제 인도적 지원

15개국 / 146.4 억 원

(현금 121.9억 원, 현물 24.5억 원)

- 튀르키예-시리아(지진 86.9억)-일본(지진 7.1억)-모로코(지진 8.1억)-리비아(홍수 9.4억), 미국(산불 2.8억) 등 긴급구호 및 재건복구 지원
- 우크라이나 앰볼런스(40대) 지원
- 튀르키예 임시 지역사회 서비스센터 건립 지원

민·관 협력 개발협력사업

8개국 / 11개 사업 / **146.4** 억 원

다자협력사업

- 요르단 물 평화사업
-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재난위험경감사업

개발협력사업

네팔	통합적 물과 위생 및 재난위험경감사업
베트남	재난위험경감사업
인도네시아	학교 환경개선 및 맹그로브 조성 사업
불가리아	난민센터 지원 사업

국제적십자회의 등 국제회의의 참석

국제적십자회의



5 회

파트너십 회의



5 회

양자회담



16 회

리더십 내방 교류



10 회

아태지역 재난 복원력 강화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협력 활성화

도시 복원력 협력 플랫폼 컨퍼런스 개최 28개국 / 105명

- VR 재난안전 체험교육, 산불 VR 콘텐츠 개발(캐나다 적십자사 협력)
- 대한적십자사-IFRC 합의를 개정으로 명칭 공식화 “아태재난복원력센터”
- 대한적십자사 최초 글로벌 연구 컨소시엄 개최 27개 기관

시간의 커가 겹겹이 쌓인 골목을 걷다

: 인천 개항장문화지구에서 차이나타운까지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닿는 곳 인천.
백 년 전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나란히 걷는 거리가 있다.
붉은 벽돌 창고와 오래된 짜장면 냄새,
현채방의 종이 냄새가 섞여 있는 곳.
인천은 낯아서 아름답고, 오래되어서 편안하다.



최갑수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 작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다니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
여행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기쁘게 하고
사랑을 더 찬란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지금 이순간도 어딘가 여행 중이다.

@ssuchoi

붉은 벽돌 사이로 흐르는 근대의 시간, 개항장 거리

인천역에 내려 길을 건너면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개항장 거리는 걷는 맛이 좋은 곳이다. 근대은행과 물류창고, 구락부 등 이국적인 옛 건축물들이 박물관과 갤러리로 옷을 갈아입고 여행자를 맞이한다.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도 유명한 옛 대한통운 창고의 투박한 외벽을 손으로 쓸어보면 백 년 전 치열하게 살았던 항구의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만 같다. 바로 옆 한국근대박물관은 일제강점기 물류 창고를 개조해 만들었는데, 목조 천장의 고풍스러운 분위기 아래 최남선, 한용운, 김소월, 백석 같은 기라성 같은 문인들의 숨결이 머물러 있다.

영혼을 달래주는 한 그릇, 짜장면

인천까지 와서 짜장면을 먹지 않는 건 일종의 직무 유기다. 개항 후 산동지방에서 건너온 부두 노동자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 탄생했다는 이 검은 국수는 이제 한국인의 '소울 푸드'가 되었다. 공화춘의 맥을 잇는 신승반점을 찾았다. 유니짜장은 재료를 잘게 썰어 소스를 만드는데, 목 넘김이 부드럽고 짜지 않아 좋다. 면 위에 살포시 올라간 계란 노른자를 터뜨려 비빈 후, 종이처럼 얇게 썬 단무지를 곁들여 후루룩 넘기면 입안 가득 고소한 행복이 퍼진다. 배를 채웠다면 본격적으로 차이나타운 여행에 나서보자. '삼국지 벽화거리'는 삼국지의 명장면 160개를 벽화로 그려 놓았다. 길을 걷다 보면 고사성어와 그림으로 표현된 삼국지 이야기가 새록새록 떠오른다. 벽화거리를 지나 언덕을 오르면 자유공원이다. 개항 당시만 해도 '각국공원'으로 불리며 '존스톤 별장'을 비롯한 외국인 사택과 공장 등이 들어서 있었지만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초토화되면서 대부분 소실됐다. 현재는 인천상륙작전의 시발이 된 월미도를 바라보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과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 등이 남아 있다. 뱃머리 모양의 전망



신승반점의 짜장면



대에 오르면 가깝게는 인천항, 멀게는 인천대교까지 내려다 보인다.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는 송월동 동화마을이 있다. 가족 단위 여행객과 연인의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는 곳이다. 세계 명작 동화를 테마로 마을을 꾸몄다. 백설공주, 오즈의 마법사, 피터팬 등 명작 동화 주인공들이 상점은 물론 빌라, 유치원, 마 을회관, 계단에 그려져 있다.

한책 냄새와 성냥공장의 추억, 배다리 마을

배다리골 탐방의 시작은 동인천역 앞 중앙시장이다. 중앙시 장은 한복 골목으로 유명했다. 1·4후퇴 당시 황해도에서 내 려온 실항민 가운데 바느질 솜씨가 좋은 아낙네들이 옷가지 를 만들어 내다 파는 가마니 좌판을 벌인 데서 비롯됐다. 지 금도 크고 작은 한복 매장 70여 곳과 침구, 커튼을 파는 가게 들이 모여 있다.

배다리골은 19세기에 수문통 갯골과 이어지는 큰 개울이 있 었고 밀물 때면 바닷물이 드나들었다. 배를 댄 다리가 있어 배다리라 불렸다.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고 제물포에 조선 침탈을 위한 조계지가 만들어지자 그곳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 배다리와 송현동, 수도국산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시장이 들어섰고 공장과 학교가 세워졌다. 중심 거 리 우각로에는 외국인 여선교사 사옥, 창영초등학교 등 근대 건축물이 지어졌다.

중앙시장을 나오면 배다리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배다 리길, 우각로, 창영길, 금곡길 등이 이어진다. 길조여인숙, 성 진여인숙, 진도여인숙 등 요즘 보기 드문 여인숙들이 골목 에 가득하다. 여인숙 골목은 경인철도 부설로 일자리를 찾 아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전시, 문화시설로 바 꾸었다.

여인숙 골목을 빠져나오면 한책방 골목이다. 한국전쟁 이후 리어카 책방이 모이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수만 40여 개에 이르렀다. '작은 청계천'으로 불리던 골목에는 새 학기가 되 면 교과서와 참고서를 구입하려는 학생들로 붐볐다. 지금은 대여섯 곳 정도만 남아 한산하다. 골목 초입의 '아벨서점'은 37년 내력을 지닌 터줏대감이다. 한책 마니아들에게는 '성지' 로 꼽힌다.

배다리 거리에서 꼭 가보길 권하는 곳은 '배다리 성냥마을 박물관'이다. 1917년 우리나라 첫 성냥공장 '조선인촌주식회 사'가 있던 자리다. '인촌'은 '도깨비불'을 뜻하는 말. 옛날에는 성냥을 '인촌'이라고도 불렀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냥공장 과 생활 변화상을 다룬 전시로 꾸며져 가족 단위 여행객에 게 추천한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인천적십자병원

여행이 마음에 주는 위로라면, 병원은 몸에 주는 위로일 것이 다. 연수구에 자리한 인천적십자병원은 인천의 역사와 함께 해온 공간들처럼, 인천 시민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든든한 이웃이다. 배다리 마을에서 차로 조금 이동하면 닿는 이곳은 단순한 병원을 넘어 '공공의료'라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 을 실천하는 현장이다. 대학병원급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추 고 있지만, 문턱은 낮고 품은 넓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거점공 공병원으로서 응급실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강화하며 의 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겨울철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기

한파 대비 건강 관리법과 겨울철 화재 예방 안전 수칙

겨울철은 한파와 화재 사고가 함께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중 약 27%가 겨울에 발생했고, 한파 시기 응급실 방문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소한 부주의와 작은 방심입니다. 올 겨울,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계절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겨울철 사고, 왜 더 위험할까?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이 겹치면서 건강 문제와 화재 사고가 동시에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2월) 화재 비율은 전체의 약 27%로 가장 높으며, 그중 전열기·전기제품 관련 화재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한파주의보 발령일에는 실내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적 요인 화재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노후 전선, 멀티탭 과부하, 전기장판 장시간 사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겨울 한파가 심할 때 저체온증·심근경색·뇌졸중 응급실 내원은 평상시 대비 1.5~3배 증가하며, 기온이 1°C 떨어질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겨울철에는 화재와 건강 문제라는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높아지는 만큼, 전열기기 안전 점검과 외출 시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와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실내 적정 온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파 대비 건강 관리법

- **아침 외출 전, 5분 현관 적응 시간** 실내에서 바로 찬바람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외출 전 겉옷 착용 후 현관에서 5분만 체온 적응 시간을 가집시다.
- **목보다 허리 보온이 체온 유지 핵심** 배와 허리가 따뜻해지면 손끝과 발끝 순환이 좋아집니다. 얇은 패치형 핫팩을 복부나 허리 쪽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습도 40~60%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습기 없이도 젖은 수건 한 장을 침대 머리맡에 걸어두면 수면 중 호흡기 점막을 보호해 감기 위험을 낮춥니다.
- **내복은 외출용이 아니라 취침용** 낮 동안 땀을 흡수한 내복은 오히려 체온을 빼앗습니다. 잘 때 마른 내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한파 건강 관리의 가장 현실적인 비법입니다.
- **미지근한 물, 한 시간에 한 모금 습관** 차가운 물은 겨울철 체온 저하를 빠르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을 한 시간 간격으로 소량씩 마시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 수칙

- **전기장판은 3~5분 예열 후 반드시 전원 OFF** 취침 중 '강'으로 장시간 켜둘 경우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예열 후 전원을 끄거나 '약'으로 유지합니다.
- **멀티탭 관리의 핵심은 코드 청소** 겨울철 전기 화재 절반이 먼지 스파크로 발생합니다. 작은 붓 하나만 있어도 1주일에 한 번 먼지를 털어내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난방기기 주변 1m는 금지 구역** 빨래, 종이, 옷가지가 난방기기 근처에 있으면 바로 발화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 팔 뻗는 거리를 안전 거리로 기억합니다.
- **조리 후 2분간 주변 점검** 두꺼운 겨울 옷소매가 가스 불에 닿는 사고가 잦습니다. 조리 후 주변 가연물 2분 점검만 해도 주방 화재가 크게 줄어듭니다.
- **외출 전 따뜻함보다 꺼짐을 확인** 전기히터, 온풍기 등은 약하게 틀어둔 채 외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외출 점검 첫 번째 수칙은 플러그 뽑기입니다.

겨울철 사고를 예방하는 겨울 10분 점검표

건강 관리	
	허리·배 보온 유지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
	젖은 수건으로 가습하기
	외출 전 현관에서 5분 체온 적응
	잠들기 전 마른 내복으로 갈아입기

화재 예방	
	멀티탭 먼지 털기
	난방기기 주변 1m 비우기
	젖은 빨래 난방기기 근처 금지
	외출 전 전열기기 플러그 뽑기
	취침 전 전기장판 전원 끄기



본사



이재명 대통령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6일 2026년도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2025년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에서 대통령은 기부·나눔 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참여 단체들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에 기탁받은 적십자 특별회비는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02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9월 12일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1955년 출범한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사랑의 선물’ 전달, 취약계층 밀반찬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5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적십자나눔터 환경개선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했다.

인천지사



경동 임경하 대표, 대한적십자사에 차량 2대 기부

9월 9일 경동 임경하 대표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차량 2대를 서울지사와 인천지사에 기증했다. 기동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소형차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임 대표는 “수도권 지역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손길에 신속하게 닿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지사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구호활동

11월 6일 발생한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 및 구조인력 지원을 위한 구호활동을 펼쳤다. 사고 발생 1일 차부터 14일까지 누적 6,370명의 구조인력 및 피해자 가족에게 구호급식을 실시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73회 재난심리 지원 활동을 진행했으며, 사망자의 발인까지 유족과 함께하며 위로했다.

충북지사



'이음 적십자봉사회' 결성

11월 24일 이음 적십자봉사회 결성식이 열렸다. 24명의 봉사원으로 구성된 이음봉사회는 청주 흥덕구 지역의 취약계층 결연 지원 및 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인도주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인숙 초대 회장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 곳곳에 온정을 '이음'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지사



고향사랑 선물보내기,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함께

고향 방문이 어려운 이주배경 주민을 위한 '다문화가정 고향사랑 선물보내기' 행사가 진행됐다. 전북에 정착한 15가구가 참여해 고향 가족에게 전할 의류·생필품을 골라 손편지와 함께 포장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했다. 참가자들은 "고향을 자주 찾기 어려운데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경북지사 3인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 영예

10월 1일 제37회 경북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김재왕 지사회장, 이오덕 경북협의회장, 윤명옥 경북협의회 감사가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을 수상했다. 세 수상자는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서 왔다.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도민 곁을 지키는 적십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제45회 대구적십자 바자 개최

9월 18일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제45회 대구적십자 바자'를 개최했다. 지역 특산품, 의류 및 액세서리, 생필품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했으며, 아이팜코리아, 세이브타임, 켈마월드 등 후원 기업이 참여했다. '착한 소비, 함께 만드는 기적!'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바자는 적십자와 소상공인, 지역민이 함께하는 나눔의 장이 되었다.

경남지사



BNK경남은행,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10억 클럽 가입

10월 14일 BNK경남은행의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10억 클럽' 가입식이 열렸다. 2022년 10월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경남 7호' 가입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누적 기부금 10억 원을 넘기며 경남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경남은행은 매년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 성금 1억 원과 봉사활동복을 후원했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사진전**

창립 120주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특별 사진전’을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서울,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120년의 헌신, 미래로 이어지는 인도주의’를 주제로 1905년 창립 이후 전쟁과 재난, 감염병, 국제구호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인도주의 실천의 기록을 사진과 영상,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적십자 운동 12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100년의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치매극복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적십자사는 9월 16일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매 예방 사업 등 노인 복지 증진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결연지원 활동과 노인 건강 모니터링, 정서 지원 등 치매 예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매 특화사업을 도입해 전국 15개 지사가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됐다. 치매파트너 교육과정을 통해 봉사원과 직원 8,544명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했으며,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예방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 10억 클럽’
공식 론칭**

10월 25일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제9회 총회와 ‘10억 클럽’ 론칭식을 개최했다. 1억 원 이상 기부한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스클럽 회원 6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한 해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고 국내외 인도주의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미옥, 현정은, 정혜신, 김남연, 전혜정, 김진선, 박순원 등 신규회원 7명의 가입식도 진행됐다. 또한 10억 원 이상을 기부한 초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10억 클럽’을 공식 론칭하고 김거서 아너가 1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서울지사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가위 축제**

9월 25일 다같이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가위, 오늘과 내일을 함께 나누다’ 행사를 개최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가족, 적십자봉사원 등 120여 명이 참여해 출신국 전통문화 소개와 송편 만들기, 각국 재료를 활용한 요리 대결 등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보름달 조형물에 소원을 적어 공유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사는 앞으로도 다같이학교 운영을 통해 다문화여성의 지역사회 정착과 공동체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단체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파트너십 강화**

9월 26일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 LG생활건강, 고려아연, 한국수출입은행 등 33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재난구호, 안전교육, 청소년적십자, 공공의료 등 주요 적십자 활동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맞춤형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유관기관과 교류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 인도주의 거점,
마포봉사나눔터 개소**

서울지사는 11월 24일 마포구에서 ‘마포봉사나눔터’ 개소식을 열고 지역 기반 복지와 돌봄, 재난 대응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나눔터는 봉사자 교육과 취약계층 지원, 재난 대비, 식생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인도주의 거점으로 운영된다.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의 후원으로 라운지와 조리·보관 시설을 갖춰 봉사자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나눔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소로 지역 내 봉사 활동과 복지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문화 이주민
적십자 유적지 탐방**

부산지사는 11월 13일 결혼이주여성 35명과 적십자 봉사원이 함께 UN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등을 방문하는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문화이주민 지원 프로그램 ‘올투게더(All Together)’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이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베트남 출신 티칸린 씨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적십자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지사는 지난 6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다문화 다함께 가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11월 15일 전국 초·중·고 36개 팀 144명이 참가한 ‘2025 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응급 상황에서 스스로와 주변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심폐소생술 경연뿐 아니라 머그컵·그립톡 만들기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축제 분위기가 조성됐다. 평가에는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동의과학대학교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성을 높였고, 초·중·고 각 부문 대상은 충북 운전초, 전북 군산 중앙중, 부산 동주여고가 차지했다.



**제32대 부산지사
구정회 회장 취임**

11월 24일 부산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제32대 구정회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함안 출신인 구신임 회장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2년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을 설립해 부울경 지역에서 5개 종합병원과 7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지역 의료 발전에 힘써왔다. 또한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RCHC) 회원으로 꾸준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며 인도주의 가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구 회장은 “의료 재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십자 활동을 펼치겠다”며 “초고령화·다문화 시대의 복지 사각지대까지 도움이 닿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와
사회공헌협약 체결**

9월 17일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지사는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부문화 확산, 공동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들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으며, 대구지사는 “양 기관의 협력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시너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매 돌봄자를 위한
'심표 캠프' 개최**

대구지사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칠곡숲체원에서 치매 어르신 돌봄자를 대상으로 ‘심표 캠프’를 3회 운영했다. 정서적 부담을 덜고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캠프에는 치매 어르신과 돌봄자, 봉사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숲 해설, 손수건 물들이기, 편백베개 만들기 등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대구지사는 예방 캠페인과 돌봄자 지원 사업을 통해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iM뱅크·하나은행·삼성전자서비스와
1,635세대에 김장 김치 지원**

11월 한 달간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1,635세대에 김장 김치 14,420kg을 전달했다. 13일 삼성전자서비스 경북지사, 24일 iM뱅크, 27일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 후원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활동을 전개했으며,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취약계층에 김치를 지원했다. 대구지사는 앞으로도 기업과 협력해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돌봄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항금도시락 지원**

인천지사는 결식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인천 소재 지역아동센터 늘푸른교실 아동 35명을 대상으로 밀박스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학기 중 학교 급식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던 아이들이 방학 동안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아 다양한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현주 시설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따뜻한 한 끼를 보장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담은 송편,
사할린 동포 어르신과 함께하는 한가위**

추석을 맞아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천사할린동포 복지회관 어르신들을 위해 송편 빚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사할린 동포 어르신과 인천지사 직원,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 송편과 식혜를 정성껏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 포장했다. 어르신들은 송편을 빚으며 직원들과 덕담을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어르신들은 자기가 만든 송편이 더 예쁘다고 자랑하며 밝게 웃었다.



**사방팔방 재난대응,
나는야 ECO 재난예방지킴이!**

RCY 단원과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사방팔방 재난 대응, 나는야 ECO 재난 예방 지킴이” 행사를 개최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DIY 태양광 친환경 자동차 만들기, 생존 가방 꾸리기, 재난쉘터 체험하기, 플라스틱 재활용, 비상용 손전등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재난과 환경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했다. 제작된 생존 가방 세트는 인천 관내 취약계층 시설에 전달됐다.



**울산고래떡방협동조합 신용일 대표,
338호 RCHC 가입**

울산고래떡방협동조합 신용일 대표가 338호 RCHC에 가입하며 적십자 인도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후원에 참여했다. 향토 떡 기업의 2대 대표인 신 대표는 2002년부터 23년간 적십자봉사원으로 활동하며 헌혈 캠페인, 취약계층 지원, 재난구호 활동 등에 앞장서 왔다. 특히 명절마다 지역 독거 어르신과 소외계층에게 전통 떡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RCHC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사회 인도주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위기가정 지원 위한
사랑의 자선 바자회**

울산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10월 30일 울산광역시지사 강당에서 울산 관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자문위원들이 직접 기탁한 의류, 신발, 식기, 생활용품 등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장을 만들었다.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독거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울산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제2회 생존수영
경연대회 개최**

울산지사는 안전문화 확산과 생존수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제2회 생존수영 경연대회’를 문수실내수영장에서 개최했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총 16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학교급별로 구명조끼 착용법, 생존수영, 팀원 구조하기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실력을 선보였다. 심사 결과 상북초등학교 윤하정 팀, 동평중학교 이준수 팀, 현대공고 엄춘호 팀, 춘해보건대 김민석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제33·34대 회장
이·취임식**

11월 4일 대전세종지사 대강당에서 제33·34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3년 임기 송하영 회장의 이임과 정상직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는 자리로, 지역사회 인도주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주요 내·외빈과 봉사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임회장 업적 보고, 적십자기 이양, 신임회장 약력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정상직 회장은 “대전·세종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58회 응급처치
경연대회 성료**

대전세종지사는 10월 25일 ‘2025 제58회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열고 초·중·고·대학일반부 25개 팀,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필기와 심폐소생술·AED 사용 등 실기 경연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학교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세종연봉초, 신탄진중·장기중, 세종장영실고·대전용산고가 대상에 올랐으며, 수상 팀은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2025 희망나눔바자회,
이웃 나눔 확산**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와 봉사회 협의회는 9월 18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2025 희망나눔바자회’를 열어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판매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장에는 명절 준비에 필요한 육류, 장류, 전갈, 김치 등 식료품과 의류, 그릇, 화장품 등 생활용품 총 50여 종이 마련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기부 물품을 판매한 아나바다 부스도 함께 진행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판매 수익금은 연말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경기지사



**극단 노하우, 창립 120주년 기념식에서
감동의 무대 선사**

극단 노하우가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에서 특별 창작 뮤지컬을 선보였다. 1부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의 삶을 재조명한 창작공연이 펼쳐져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홍보대사 최정원 뮤지컬 배우와 RCY 단원 16명이 ‘맘마미아’ 공연을 펼쳐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한 이번 공연으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의 의미를 한층 더 빛냈다.



**Green-Up,
걸음걸음 희망을 채우다**

제23회 ‘희망나눔 자선걷기’가 광고호수공원 일원에서 11월 1일 개최됐다. 이번 걷기대회는 개회식, 일회용품, 의전이 없는 ‘3無 행사’로 진행돼 형식보다 시민 참여와 실천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탄소중립 선언과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며 약 3.5km 구간을 걸었다. 가을 정취를 느끼며 걷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나눔을 함께 실천하며 행사 취지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기부명문가 자산그룹,
미래 배우자와 자녀 RCHC 가입**

자산그룹 한주식 회장 가문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기부명문가 표창’을 받았다. 2019년 한주식 회장을 시작으로 가족들이 연이어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해 ‘RCHC 경기 1호 가족’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갈라 행사에서는 한재승 이사와 한재현 변호사의 미래 배우자, 향후 자녀 4명까지 추가 가입하며 세대를 잇는 나눔 전통을 확장했다. 미래 배우자와 미래 자녀의 가입은 대한적십자사 최초 사례다.



**강릉 가뭄 극복의 숨은 주역들,
물과 마음을 나누는 봉사원들**

9월 한 달간 적십자 봉사원들과 강릉 가뭄 극복 활동을 전개했다. 봉사원들은 구호 활동을 넘어 취약계층 돌봄과 심리 지원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펼쳤다. 가뭄 초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원된 생수를 강릉시 안내에 따라 관내 결연·비결연세대, 임대아파트 5곳 등 총 2,750가구에 직접 방문 전달했다. 가뭄이 장기화되자 마을 회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9개소에서 심리 지원 활동을 펼쳤고, 재난 사태 해제 후에도 사회복지시설과 소방 인력들의 세력 지원까지 도맡아 가뭄을 함께 극복했다.



**2025년 강원적십자사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강원지사는 10월 19일 춘천시청 호반광장에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 시민 등 총 118명이 참여했으며, 4인 1조로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한 과제를 수행하며 응급처치 능력을 겨뤘다. 특히 심폐소생술(CPR) 등 생명을 살리는 핵심 기술을 현장 시연으로 평가해 참가자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응급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 방법과 인도주의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100년 선제적 인도주의로”,
2025년 강원적십자사 연차대회**

11월 1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2025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적십자 사업에 공헌한 봉사원, RCY 지도교사, 후원자, 사회협력기관 등을 포상하고 적십자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김선배 회장, 김진태 지사, 양숙희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수상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선배 회장은 “지역 곳곳의 나눔과 연대가 오늘의 강원 인도주의를 만들었다”며 “이웃을 향한 실천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송봉사회, 사할린 한인 어르신과
함께하는 따뜻한 빵 나눔**

적십자봉사회 흥덕구협의회 소속 오송봉사회는 오송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과 함께 제빵 봉사를 실시했다. 단팥빵, 완두빵, 마데라컵 케이크 총 300개의 빵을 직접 만들고 정성껏 포장하여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완성된 빵은 오송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 어르신 40여 가구에 직접 전달되어 이웃 사랑의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충북적십자사와 오송봉사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6.6톤의 김장김치 나눔,
‘나누는 김장, 행복한 가을’**

충북지사는 사단법인 스마트경영포럼, (주)석진산업, 수이재1928의 후원으로 ‘나누는 김장, 행복한 가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임직원, 봉사원, 대학RCY 등 약 200명이 참여해 총 6,600kg의 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가구당 10kg)는 충북지역 희망풍차 결연 660세대에 봉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 등 정서적 지원과 함께 전달됐다.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에 풍성한 가을의 정을 나누는 선순환 나눔의 장이 됐다.



**미래 인도주의 리더 양성,
충북RCY ‘너의 꿈을 응원해’**

RCY(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의 꿈과 적성을 응원하는 ‘2025년 충북RCY 너의 꿈을 응원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미래 진로에 관심 있는 RCY 단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 안전 VR 체험, 소화기 시뮬레이터 등 재난 안전 교육과 청소년 심리 지원 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해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우정의 선물상자’를 직접 제작하고 응원 편지를 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업자문위원회 베트남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시

충남지사 사업자문위원회는 베트남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타이응웬성을 방문했다. 사업자문위원회는 2023년 사전답사에서 Ban Dat초등학교 식당시설 신축과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기금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베트남 적십자 대표단과 함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정윤 위원장과 황종현 명예위원장 등 5명이 참여해 4일간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주요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2025 충청남도 희망나눔 걷기대회 개최

10월 25일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2025 충청남도 희망나눔 걷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걷기대회는 ‘봉사의 결음, 희망의 결음, 청소년의 내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도내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습용 IT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충청남도를 비롯해 국제로타리3620지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NH충남본부,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다양한 먹거리와 경품,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적십자 봉사원과 RCY 단원, 일반 시민 등 총 3,000여 명이 참여해 단풍나무 숲길을 걷고 심폐소생술,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25년 대한적십자사 3권역 재난구호 종합훈련 실시

11월 26일 ‘2025년 대한적십자사 3권역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충남지역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적십자 봉사원 비상응소와 권역별 ERU시스템 운영, 이재민 대피소 설치 등 재난 상황 구호활동을 실제처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난급식차량과 세탁·샤워·재난대응차량 등을 총동원해 절차를 확인했으며, 대전·세종,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사와 거창적십자병원 등 6개 기관이 함께하고 내포 119안전센터가 협조하며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제32·33대 이선홍 회장 이임식 및 제34대 김홍식 회장 취임식 개최

11월 25일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이임식과 김홍식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홍식 신임 회장은 전북도시가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전북지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이어오며 레드크로시아너스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취임식에서 김 회장은 “전북지사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움의 30년, 군산적십자평생대학이 걸어온 길

군산적십자평생대학은 개교 30주년을 맞아 9월 26일 기념식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봤다. 1995년 개교한 평생대학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양·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해 왔다.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과 지속적인 소통 활동을 통해 지역의 대표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최용희 학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 제60회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전북지사는 11월 8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누리관에서 제60회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중·고 학생과 일반·봉사 부문 등 총 32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붕대법 등을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시연했다. 전북지사는 이번 대회가 위급한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익히는 자리였으며, 참가자들이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안전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10월 25~26일 순천 청암고 체육관에서 초·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인 등 360명이 참가한 '2025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열렸다. 총 90팀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종합응급처치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으며,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능력을 선보였다. 광주는 5개, 전남은 7개 훈격의 상장이 수여됐으며, 각 부문 1위 팀에게는 부산 전국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졌다. 행사장에는 마술공연, 포토부스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위한
'2025 재난 마스터 경연대회'**

10월 26일 지사 별관에서 '2025 재난 마스터 경연대회'가 열렸다. 적십자 봉사원 4인 1조로 구성된 7개 팀이 쉼터 설치·해체를 수행하며 협력 능력과 현장 대응 속도를 평가받았다. 박재홍 회장은 이번 경연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29 제주항공 참사' 경험을 반영한 신형 쉼터가 공개됐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 기부금 1억 원으로 제작된 총 422동이 전국 지사에 순차 보급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광주전남지사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Reddy GO! Save energy!'를 추진했다. 총 1억 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높이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무안군 등에서 취약계층·보훈대상자 45가구에 LED조명 교체, 절전 멀티탭, 흡서기 물품 등을 가구당 100만 원 상당으로 지원했으며, 사회복지시설 10곳에는 쿨루프 시공을 실시해 냉방 효율을 개선했다. 광주전남지사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어르신 심리·건강 지원 위한
'다독다독 프로젝트' 실시**

경북지사는 9월부터 취약 어르신의 정신건강 증진과 고립 예방을 위한 '다독다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했다. 개인·집단 상담, 자조모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영주시 안정면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봉사원과 상담활동가들이 참여 의지를 다지고, 웃음치료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적십자 인도주의 스타트업 공모에 선정된 만큼, 지역 상담 인력과 의료 자원을 연계해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완화와 정신건강 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재난에 강한 적십자"
2권역 합동 재난구호 종합훈련 실시**

10월 16일 안동 안동2지구공원에서 경북·대구·충북지사와 유관기관 120여 명이 참여한 '2025년 2권역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초대형 산불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피소 설치, 구호물자 이송, 급식·세탁·샤워 차량 운영, 응급의료·심리 지원, 무선통신 구축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실천처럼 점검했다. 특히 긴급대응유닛(ERU) 체계를 중심으로 초기 72시간 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북지사는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중윤 다인환경(주) 前 대표,
아너스클럽 가입**

10월 29일 안동 사옥에서 금중윤 다인환경(주) 전 대표의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가입식을 개최했다. 금 전 대표는 경북 지역 여덟 번째 고액기부자로 등록됐으며, 지사 상임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금 전 대표는 고향에서 활발한 인도주의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회 울진군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추가 기부하며, "고향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되돌리고, 적십자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손길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안과의원과 함께하는
석전동 어르신 행복 밥상 나눔**

11월 15일 김안과의원과 함께 어르신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석전동 어르신 행복 밥상 나눔' 행사를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했다. 김안과의원 후원금 1,300만 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석전동적십자봉사회를 비롯한 150명의 봉사원이 따뜻한 국, 밥, 수육, 과일을 준비해 어르신께 든든한 한 끼를 제공했다. 김안과의원은 2021년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1억 클럽 경남 5호로 등재된 이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 9월 2억 클럽에 가입했다.



**RCY 단원들과 함께하는
펀앤티리 체험활동**

경남적십자사는 11월 2일 RCY 단원들과 '2025년 펀앤티리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RCY 단원에게 교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 보람과 재미를 전달하고자 계획했다. RCY 단원, 학생 지도자, 직원 등 151명이 경주월드를 방문해 각종 어트랙션 체험, 공연 및 퍼레이드 관람 등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남적십자사는 앞으로도 RCY 단원들의 성장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남지사 연차대회**

11월 10일 나눔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박완수 도지사,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경상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 최충경 위원장, 창원상공회의소 최재호 회장을 비롯해 적십자봉사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박희순 지사회장은 "앞으로도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연차대회는 12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시지구협의회
추석 맞이 음식 400세트 나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시지구협의회(회장 정경자)는 9월 21일, 22일 양일간 적십자 봉사원 및 제주은행 봉사단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을 맞아 희망풍차 결연 400가구에 명절 음식 6종을 직접 제작해 전달했다. 이번 명절음식 나눔은 제주도 내 희망풍차 결연가구 400세대를 대상으로 추석을 맞아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시지구협의회 봉사원들과 제주은행 봉사단이 직접 음식을 전달하며 정서적 나눔을 보태 그 의미를 더했다.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는 10월 25일 제주적십자사 사옥에서 '2025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응급처치강사봉사회(회장 신정미)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과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4인 1팀으로 구성돼 성인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영아 기도폐쇄 처치 및 영아 심폐소생술 등이 진행됐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39팀에게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제주도교육감, 소방청장, 제주도지사 등 여러 기관장들의 상장이 수여됐다.



**기후 위기 대응
재난 안전 세미나 개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 재난 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기후 위기 시대, 제주의 품목과 온열 질환 대응 전략'에 대해 박창열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겸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장이 발표했다. 이후 김태윤 한라의료재단 기획관리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패널로 참가한 5명의 재난 전문가들은 주제 발표 쟁점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재난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해 토론했다.



나눔이 희망입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 적십자회비

64,794,254,377 원

⊕ 정기후원

58,995,159,056 원

*2025. 9. 1. ~ 2025. 1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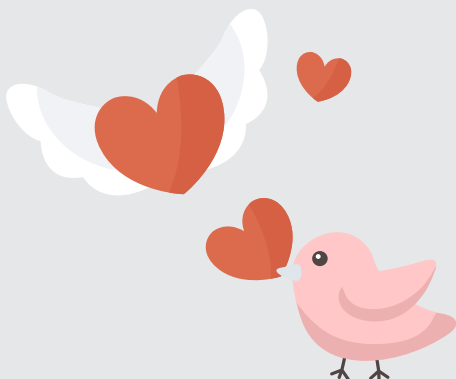
프로그램 후원 내역(2025. 9. 1. ~ 2025. 11. 30.)

사회공헌협약 체결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사회협력 기부금품 내역

1억 원 이상	사단법인엔에이치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경상북도 한국삭도공업(주)
5,000만 원 이상	(주)녹십자 김거석
1,000만 원 이상	주식회사 슈카친구들 (주)유한양행 대한씨름협회 주식회사 디엠이엔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00만 원 이상	(주)지에스리테일 홀쇼핑 CJCGV(씨제이씨지브이)(주) 김지환
100만원 이상	에스이십사 주식회사 하민호 주식회사 잘론네츄럴 (주)비룡소인터내셔널 (재)성주재단 오금석 주식회사 씨엔에프 함형택 주식회사 지앤푸드 주식회사 리즈팜 (주)씨에스엠 김동호 김영섭 김필영 윤정건 이경재 이우수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현황

故정요한 강난파 강석중 강소영 강슬기 강신애 강신혁 강영신 강영의 강옥채 강원선 강은희 강지현 강중구 강태선 곽광만 고진호 공봉애 곽경부 곽희순 구본우 구정희 구제길 구한조 권오록 권혁수 금종윤 김거석 김경배 김경조 김경희 김교숙 김남곤 김남연 김남희 김대곤 김대환 김동욱 김명돌 김무임 김문자 김미 김미경 김미량 김민정 김민호 김범수 김병관 김병숙 김봉욱 김상열 김상태 김상호 김석주 김선곤 김선향 김선호 김성주 김수관 김애란 김영식 김영자 김영현 김영혜 김영화 김영희 김우준 김윤희 김윤철 김은용 김은재 김익기 김인순 김일랑 김자경 김재봉 김재왕 김정규 김정수 김진기 김진구 김진선 김진태 김창남 김철 김철수 김철용 김철용 김초원 김태연 김태영 김택남 김한 김한성 김형일 김호연 김홍국 김홍수 김홍식 김화자 김효봉 김희성 김희선 김희철 김희철 남성희 남종현 도경희 류시문 목광원 문명재 문은수 문진석 민경용 박명수 박병선 박순단 박순원 박승현 박연차 박윤미 박장배 박재규(2회 가입) 박재상 박재연 박재천 박재홍 박주환 박종근 박종태 박준영 박해진 박홍석 박희순 배인호 백낙서 백낙환 백인계 변순자 변정섭 서봉근 서봉숙 서의수 서정기 서정의 서창희 석승한 성정화 손덕임 손창우 송광자 송경자 송금순 송길자 송옥희 송은지 송재승 송준기 송혜교 신동삼 신성민 신수봉 신숙경 신용구 신용일 신정택 신현국 신현봉 안응수 안재욱 안준엽 양문자 양시백 양인준 양창홍 양한중 오길순 오나영 오복진 오연서 오연준 오현봉 우현희 유봉기 유중근 유진중 윤경립 윤금영 윤미선 윤병욱 윤병철 윤신일 윤옥자 이강운 이강원 이경호 이기영 이도희 이도건 이명희 이미옥 이병현 이상락 이상록 이서례 이선진 이선홍 이성구 이성용 이세웅 이수만 이승기 이승연 이승엽 이승윤 이승환 이연구 이영건 이영철 이영해 이용찬 이유순 이원희 이재남 이정자 이정진 이정훈 이종욱 이주영 이종근 이종호 이태용 이태호 이현건 이현태 이혜원 이희방 이후석 임경하 임복희 임순이 임은영 임형주 장대식 장대우 장상규 장성훈 장세욱 장영희 장예순 장오환 정규진 정기호 정민혜 정석관 정석현 정성우 정영화 정영진 정요한 정용 정진아 정혜신 정지선 정찬률 정채영 정필곤 조덕선 조의영 조정애 조현숙 주경숙 차영화 채중성 최경준 최광주 최상준 최신원 최영수 최영아 최윤희 최위승 최창철 최충경 최해상 한광원 한영수 한일랑 한재승 한재승의 미래배우자 한재승의 미래자녀 한재현 한재현의 미래배우자 한재현의 미래자녀 한주식 한호동 허규현 허완구 허연호 허용수 허인영 허정 허종태 현정은 현종협 홍경순 홍라희 홍성열 홍오성 홍은영 홍종욱 홍태희 황광자 황규철 황세열 황영웅 황인성 황종현 황찬규

*가나다순(2025년 11월 30일 기준, 익명 기부자 7명, 중복 1명 포함 324명)

특별회비(2025. 9. 1. ~ 2025. 11. 30.)

본사

- 1,000만 원 이상** (주)드림코리아 미그린치과교정과정치과의원 오햇님 iM뱅크 김진태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 500만 원 이상** (주)앤유 대성에너지(주) 주식회사대건테크 현대자동차세마을 금고 에스엔피커뮤니티 주식회사 (주)신태원종합건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 (주)이즈피엠피 주식회사 캣페스타 주식회사리슨트
- 100만 원 이상** (주)평화발레오 주식회사승산정밀 블룸버그코리아유한회사 장우석 주식회사평화이엔지 (재)화성장학문화재단 한화시스템(주) 김현겸 (주)대성파인텍 마산도선(주) 창대라벨주식회사 주식회사사인 (주)광진상사 태영기계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본부 OCI후원 오정철 주식회사돈우마을 주식회사리빙케어 원익엘앤디주식회사 동해강업(주) 한국공항공사여수지사 오재갑 배태분 장영희 대전청록교회 임영옥 김희숙 주식회사한백트레이딩 김동하 새마을금고연합회전북지부 (주)두산종합목재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여상진 김윤숙 의령군청 박명숙 365공유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주)선우테크앤컴 광복농농조합법인 (주)네패스아크 엘티에스 주식회사 우원중공업(주) 주식회사에이티에스 (주)메타바이오메드 홍설유 강정훈 김상호 김경희 박희순 의정부수요회 최명순 미성합 동공인중개사사무소 이수잔정 천가영 박종근 유한회사 아리건설 이종선 이성복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 이경숙 이희덕 (주)영남플룸 (주)함일셀레나 주식회사세종씨엔지

서울지사

- 1,000만 원 이상** (주)베페 오햇님 주식회사 메세이상
- 500만 원 이상** 최명순
- 100만 원 이상** 김현겸 미성합동공인중개사사무소 블룸버그코리아유한회사 오재갑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 이성복

부산지사

- 500만 원 이상** (주)앤유 에스엔피커뮤니티(주) (주)신태원종합건설 (주)메세이상 해운대구청 안정훈 (주)지맥스 서원테크(주) (주)미래전람
- 100만 원 이상** 배태분 동해강업(주) 대표이사 박재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병근 의원 기장군 정관읍 달산6리마을 주민일동

대구지사

- 1,000만 원 이상** 주식회사 메세이상 iM뱅크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
- 500만 원 이상** 대성에너지(주)
- 100만 원 이상** 대구시의사회 평화발레오 (재)화성장학문화재단 대구금호로타리클럽 대구시약사회 장우석 주식회사 평화이엔지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한화시스템(주) (주)고구마 (주)광진상사 영화·영진·영심이 라이온스클럽 (주)리빙케어 한국전기안전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

인천지사

- 1,000만 원 이상** (주)인천글로벌시티

울산지사

- 100만 원 이상** 이호준 (주)한백트레이딩 대표이사 김희숙 봉사회 울산시협의회 부회장 (주)자인 오정철 HD현대중공업 기갑

대전·세종지사

- 1,000만 원 이상** 하나은행충청기관사업부

경기지사

- 500만 원 이상** 주식회사메세이상 (주)이즈피엠피 (주)캣페스타 (주)리슨트
- 100만 원 이상** 재단법인 하나금융재단 장영희 김동하 김윤숙 강정훈 홍설유 창대라벨(주) 의정부수요회

강원지사

- 100만 원 이상** 돈우마을 류석환

충북지사

- 500만 원 이상** 박민숙 세마디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진글로벌
- 100만 원 이상** 강산이벤트기획 부경건설 합자회사 화양레저(SKY이벤트)

전북지사

- 1억 원 이상** 권준하
- 1,000만 원 이상** (주)전북은행 김진태 (주)한원엔지니어링
- 500만 원 이상** (주)전북일보사 양재호 오씨아이 주식회사 군산공장 창해에탄을
- 100만 원 이상** 새마을금고연합회전북지부 최범현 이수광 아중요양병원 재단법인 하나금융나눔재단 김동봉 대한적십자사전북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주)한원엔지니어링 (유)대명산업 농협은행(주) 정읍시지부

광주·전남지사

- 100만 원 이상** 김열화 이순임 이정심 양순화

경북지사

- 100만 원 이상** 경산여자중학교 경북대학RCY지도교수협의회

경남지사

- 1,000만 원 이상** 정영화
- 100만 원 이상** 주식회사대건테크
- 100만 원 이상** 365공유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김경희 김상호 마산도선(주) 마산청과시장(주) 박명숙 박희순 보건봉사회 여상진 의령군청 이경숙 이종선 이희덕 (주)대성파인텍 (주)두산종합목재 주식회사 보성개발 주식회사 승산정밀 주식회사세종씨엔지 주식회사티에스지 (주)영남플룸 (주)함일셀레나 창원시청 통영적십자병원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제주지사

- 1,000만 원 이상** 서명숙 김순이 주식회사산내들환경
- 500만 원 이상** 구암굴사 오태유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
- 100만 원 이상** 성산일출적십자봉사회 박두화 (사)여성중앙제주지회 강덕부 김영록 노고로기 명성어린이집 정태근 김광서 조혜린 제주적십자골프회

대한적십자사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생생한 활동 소식과 다채로운 이야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RedCross> 소식지를 만나 보세요!



대한적십자사는 연 4회 <RedCross>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RedCross> 웹진 구독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독 시 연간 제작비와 발송비가 절감되어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식지 신청하기



적십자 콜센터

1577-8179
(유료)

후원자라면 정보 최신화하기!



<RedCross>를 이미 받고 있던 후원자라면 회원 정보 최신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우편물 반송을 줄이도록 도와주세요. 같은 주소로 여러 권의 소식을 신청한 경우 한 주소당 한 권의 소식을 받아 더 많은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개별 발송이 필요한 경우 02-3705-3754로 문의

<RedCross> 2025년 가을호 독자 의견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병원을 꿈꾸며’ 편을 읽고 희망진료센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난민, 다문화가정까지 의료 지원을 한다는 사실이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강호정 창원시 의창구

‘일상 속 RC’에서 가을 캠핑,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는 법 편을 유용하게 읽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가족과 캠핑을 준비하고 있던 참에 박찬은 기자님의 기사를 읽으니 더욱 재미있고 설렘했습니다. 특히 캠핑장 화재 예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레드크로스>를 구독하고 있지만 뻘내 내용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꼭 필요한 안전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적십자사의 소식지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호도 기대하겠습니다.

김희준 서울시 마포구

‘한 방울의 용기가 만드는 기적’ 편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천안두정고등학교 학생들의 생기발랄한 헌혈 캠페인을 보니 고등학교 시절 RCY 단원으로 활동했던 아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을 스스로 기획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의료진에게 감사 편지를 쓴 학생들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제목처럼 ‘한 방울의 용기가 만드는 기적’이 와닿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청소년들의 활동 소식을 많이 전해주세요.

이순화 강원도 속초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실린 ‘고등학교 JRC에서 시작해 50년간 이어온 나눔의 여정’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라인테크닉스 예태환 대표님이 “봉사와 나눔은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사회에 기여한다는 부분에서 스스로 뿌듯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데서 감사함을 느낍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할 때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깨닫고, 제 자신에게도 큰 기쁨을 선물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에 너무 공감합니다.

이인경 인천시 영수구

후원자 선물 당첨

-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 강호정, 김희준, 이순화, 이인경
- 대한적십자사 미니 구급함 | 김오길, 문희옥, 박은실, 최지은, 황순재
-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 김향미, 손지민, 엄선일, 이송민, 최병진, 최용범, 추미영



코너 및 만족도 조사

RedCross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 독자 참여 QUIZ!

12월, 적십자회비로 나눔을 실천하는 달

적십자회비는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 성금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시작된 국민 모금 운동은 오늘날 재난 현장부터 복지 사각지대,
국제 인도주의 활동까지 적십자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십자회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각 문제의 정답을 맞춰보세요. 힌트에 정답이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세요.

Q1.

적십자회비는 세금이다.

O/X

| 힌트 | 지로 상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적십자회비에 참여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X

| 힌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3.

적십자회비는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분쟁 및 재난 피해국 긴급구호, 국제개발협력 사업, 생명안전교육,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쓰인다.

O/X

| 힌트 | 적십자회비는 국내사업, 국제사업, 교육사업, 의료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선 물

4명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2만 원)

5명



대한적십자사 미니 구급함

7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 보기 | ① O-X-O

② O-O-X

③ X-O-O

고객
만족도 조사

<RedCross>는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2025년 <RedCross> 가을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2021



2022



1905 - 2025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기마다, 대한적십자사가 희망의 길을 찾아갑니다.

2024



2025

